



개인적 뇌를 넘어 사회적 뇌로 「마음과 철학」과 「인간과 두뇌의 신비」강의페어링 영어영문학과, 차현재, 201321588, 정재영교수님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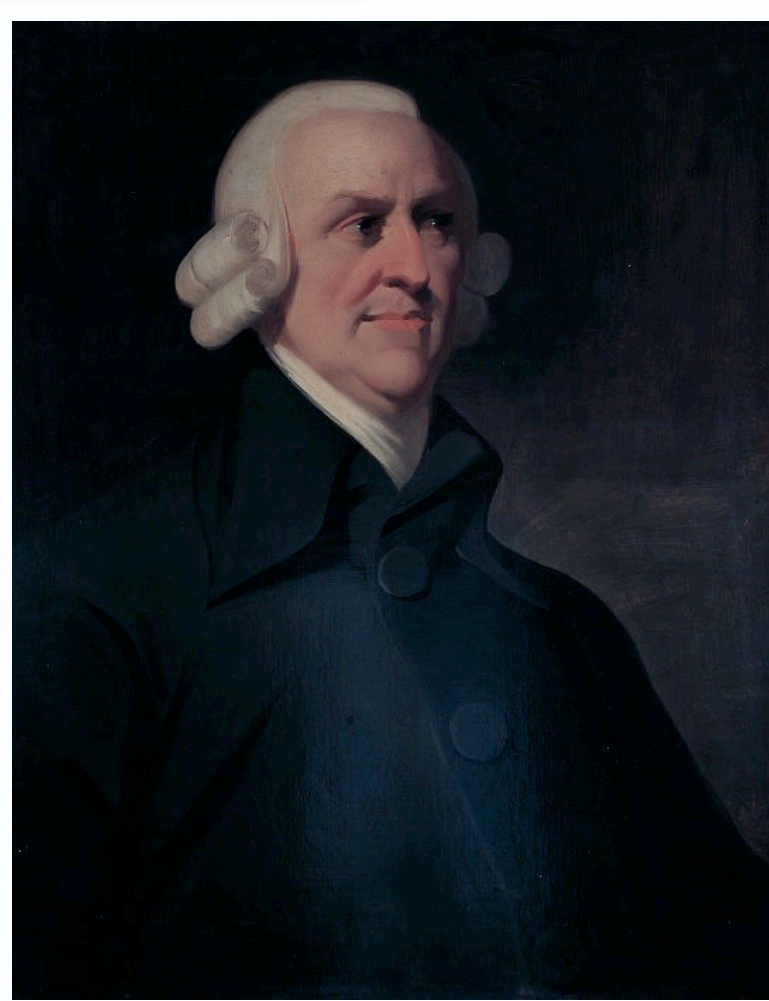
목적

아담스미스의 저서 <도덕감정론>에 나오는 '공정한 관찰자'와 '상상력'의 개념과 현대 뇌과학을 연결하는 시도를 하여 관계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 혹은 긍정적인 감정을 해석하고 '적정한' 기준을 세워보고자 한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인간의 감정과 소통능력, 그리고 윤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전전두엽은 다른 뇌 영역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고도의 결정기능과 자세, 태도, 감정안정, 타인의 감정 이해, 양심이라는 개념 등이 작동하는 핵심본부라고 한다. 거울 뉴런 또한 타인의 행동, 정서, 감각을 이해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므로 이 두 영역을 연결시켜 공감 메커니즘을 보고자 한다.

'마음과 철학'에서의 강의페어링

애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

-스미스는 저서에서 "공정한 관찰자"를 공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소개한다. 이는 우리 내면의 관찰자로, 자신과 자신,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계 전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위 등에 대해 그것의 적정성을 메타적으로 관찰하는 나라고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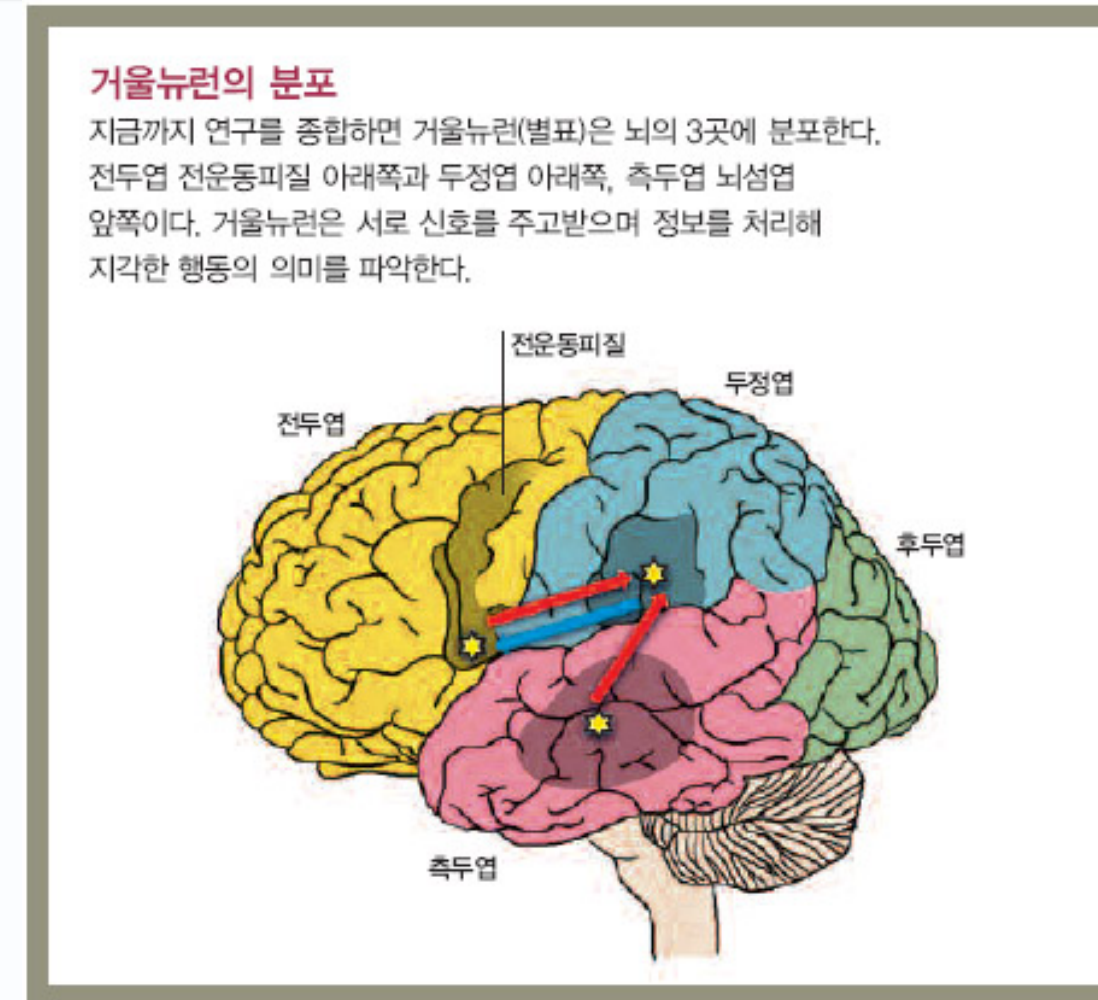
'인간과 두뇌의 신비'에서의 강의페어링

1. 거울뉴런

- 인간의 공감능력을 담당하는 신경세포. 우리가 타 개체의 어떤 행동을 볼 때 우리 자신의 뇌에서 활성화가 된다.

2. 전전두엽

- 가장 고차원적인 의식활동을 담당하는 부위, 메타인지와 관련
양심, 충동조절, 결단, 감정 이해의 중추



강의페어링 융합 사례

스미스의 공감이론은 감정과 이성(생각,판단,측정,승인)의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진다. 스미스의 관점에서 볼 때 전두엽의 제어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공정한 관찰자이다. 공정한 관찰자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할 때 전기자극을 전달하는 틈인 시냅스의 질이 향상되고, 그 통로를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신경전달물질 또한 주체가 접하게 되는 내/외부의 상황에 적합한 양태를 지닐 수 있게 된다. 공정한 관찰자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한다는 것은 고난과 역경 상황에서도 그로 인한 불안에 함몰되지 않고 공정한 관찰자를 통해 메타적으로 삶을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더 나아가 행복의 가치와 양태를 외부가 아닌 공정한 관찰자에 의해 승인되는 자기 내면의 적정성에 둬으로써 윤리적이면서 동시에 창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또한 뇌과학의 중요한 발견인 '거울뉴런' 또한 스미스의 공감론과 비슷한 점이 많다. 스미스는 "고립된 곳에서 살아가면 자신의 생각과 행위의 적정성이나 공로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제대로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285) 한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뇌과학의 거울뉴런의 개념과 맥락을 같이한다. 타인의 감정과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울뉴런은 도덕관념의 시작이자 기초가 된다.



강의페어링 적용 가능 사례

거울뉴런은 현재 교육, 임상, 마케팅분야 등 많은 분야의 이론적 기반이 되고있다. 특히 도덕 교육 분야에서, 거울뉴런의 존재는 단순히 말로 '~해야한다', '하면 안된다' 등을 가르치기보다는, 거울뉴런의 작용을 이용하여 모범적인 행동이나 인물을 설정하여 그의 행동을 지켜보게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게다가 앞으로 보편화될 VR사업에서 또한 거울뉴런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다양한 도덕적 상황을 제시하여 사용자에게 직접 행동하도록 해봄으로써 사용자는 실생활에서 타인과의 공감, 소통 능력이 더욱 발달 될 것이다.

결론

'개인적 뇌'를 넘어 '사회적 뇌'로

- "공감은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무뎠어지는 것"(최재천,2017)이라 하였다. 우리는 이 자동적이고도 타고난 습성이 무뎠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거울뉴런의 기능으로 시작하여 전두엽의 메타적 인지기능을 통하여 나와 나, 나와 타자의 경계를 없애고 공감을 통해 그 간극을 흐리게 된다면 우리는 타자와 진정으로 공명할 수 있는 지점을 저절로 찾을 수 있게 된다. 모든 개인은 그 자신들보다 더 큰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협동하여 기여를 하면 개인적인 이득을 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주변의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우리는 이득을 얻게 되는 셈이다. '내 것'과 '내 사람' 등만을 생각하는 직접적 이익을 넘어서 더 깊이 생각해야 파악되는 집단적 이익의 세계에 발 딛는 것이다. 공감은 우리를 후자에 감정적인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개인적 뇌를 넘어 나와 타인, 세계가 연결된 사회적 뇌를 느낄 수 있는 다리를 제공해준다.

참고자료

<도덕감정론>(한길사),
<인간은 어떻게 서로를 공감하는가>(바다출판사),
인간과 두뇌의 신비 강의노트